지역 **메 아 리**

고창군의회, 행정안전부 방문

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4명이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.

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19일에 개최된 제 2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'동 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따른 재검토 결 의문'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.

고창군의회에서는 "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가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을 결정한 것 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전국적인 참 여를 알리는 최대규모의 민중항쟁의 상징 적인 날인 4월25일 무장기포일로 지정되어 야 한다"고 강력히 호소했다.

또한, 문체부의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'지역참여도 평가' 항목이 포 함된 것에 대해 "역사성과 상징성으로 대 표되어야 할 법정기념일을 단순히 지역 주 민들의 참여도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정 지척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모든 고창군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"고 말했

고창군의회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법 정기념일 제정 재검토를 위해 지속적으로 /고창=김영식 기자 노력할 예정이다.

부안군,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

부안군은 구제역 없는 청정지역 유지 를 위해 오늘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'구제역 수시 예방접종'을 실시한다.

접종 대상 소(하・육우, 젓소)는 지난 해 10월 접종 이후 4~7개월 도래했거나 2개월령 송아지로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개체지정 및 추출해 수시접종을 실시한다.

돼지의 경우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모든 돼지 매 6개월마다 접종, 2개월령 어린돼지를 접종 실시할 계획이다.

접종 두수는 소 8천두, 돼지 1만두 등 총 1만8천두이다.

백신은 소 50두, 돼지 1,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무상공급되며, 전업농가 의 경우 고창부안축협 부안지점에서 백 신 구입비용 50%를 분담하고 공급받을 수 있다. 접종 방법은 농가 자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농가와 시술능력이 없는 농가, 고령농가 등의 경우 공・개 업수의사를 통해 접종시술을 지원한다.

군 친환경축산과 관계자는 "축산농가 의 구제역 예방접종은 필수 사항이며 예방접종만 한다면 구제역 발생은 걱정 없을 것이라며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접 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 해 농장 차단방역, 주기적 소독을 반드 시 실시해 줄 것"을 당부했다.

/부안=김석진기지

식품산업 모든 역량 집중

유기상 고창군수 신년 기자간담회 가져… 농생명식품산업 전방위 행정 지원강화

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11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신년 출입기자간담 회를 갖고, 2019년 군정 운영방향을

이날 유 군수는 "지난해 고창군수 로 취임하면서 내 고향 고창을 세계 최고의 고창으로 만들지는 염원으로 '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하 반도 첫 수도 고창 을 깃발로 내걸 었다"며 "올해는 고창을 명실상부한 농생명식품산업의 수도, 역사문화관 광산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기초 를 확실히 닦겠다"고 말했다.

고창군은 올해 5대 군정방침을 고 창시대의 주춧돌로 삼고, 모든 역량 을 집중하기로 했다.

먼저, 산, 들, 강, 바다, 갯벌 등 천 혜의 지연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농생 명 식품산업 살리기를 군정 제 1과 제로 삼았다. 고창농산물 브랜드 통 합추진, 농민수당 지원, 7개 전략작 물(수박, 멜론, 고추, 인삼, 보리, 고 구마, 땅콩)의 신기술 시범사업, 가 지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이고, 행정에선 농업관련 부서를 수석국으 로 승격시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품격 있는 역사문화 생태관광중심

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된다. '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'을 통한 문화기획 역량을 높이고, '고 창읍성' • '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 사업'과 연계한 대한민국 읍성문화 테마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가기로 했다.

더불어 제 56회 도민체전을 성공리 에 열고, '스포츠마케팅 전담조직' 도 설치해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 해 '돈 버는 체육행사'로 지역경제 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.

인재육성・인문학도시 구축을 위 한 사업도 계속된다. 오는 9월 예정 된 한국 지역도서전을 예향 • 의향 • 인향의 도시 고창만의 색깔을 더한 성공적인 도서전으로 준비하고, 평 생학습, 인문학 강의를 강화해 전국 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만 들어 내기로 했다.

고창 최대 현안사업인 일반산업단 지는 상반기 중 공사 준공과 유치권 해소를 목표로 각종 절차가 순조롭 게 진행되고 있다. 고창군은 올해 일반산단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식품기업 유치를 본격화할 계획이 다. 이밖에 고창군 전체 상가에서 유통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도 추



진해 고창의 돈이 지역에서 돌고도 는 상생경제 체제 구축에도 노력하 기로 했다.

유기상 군수는 이날 "새천년의 길 목에서 각계각층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면서 고창에 불어온 새로운 기 회와 희망을 살려 '대한민국 고창시 대'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이어 "2019년은 '평이근민'의 자세 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 는 행정으로, 더 친근하게 군민 속 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력 하겠다"며 "군민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"를 /고창=김영식 기자 당부했다.

군정비전 공유 통해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

권익현 부안군수, 연초방문 '이청득심' 오늘부터 진행

권익현 부안군수가 군정비전 공유 등을 통해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 등을 위한 연초방문 '이청득심(以聽 得心) 을 오늘부터 진행한다.

이청득심은 '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 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 라는 의미이다.

부안군은 이번 연초방문을 민생과 주민복지 등 읍면 본연의 업무에 집 중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지행할 계획이다

특히 군정비전 및 읍면 주요사업 공 유를 통해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 하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 등 민생탐 방으로 군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.

연초방문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실시

되며 읍면기관단체장과 마을지도자, 지역주민 등 읍면별로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읍면별 일정은 오늘 동진면을 시작 으로 15일 부안읍·주산면, 16일 행 안·보안면, 17일 백산·변산면, 18일 계화·진서면, 24일 하서·상서면, 25 일 줄포면, 29일 위도면 등이다.

부안군 관계자는 "이번 연초방문은 새해를 맞아 군정에 대한 다양한 군 민의 의견을 수렴 · 반영해 지역혀안 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"며 "주민들의 삶의 현장의 다양한 목소 리를 청취해 군정에 반영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/부안=김석진 기자

"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"

28일까지 읍·면·동사무소서 접수

정읍시농업기술센터(소장 문채련 이하 농업기술센터)는 2019년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시업의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읍 •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 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.

농업 신기술보급 사업은 최근 개발 된 신기술과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시범요인을 농업인에게 시범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.

2019년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총 5개 분야, 49개 시업, 106개소에서 실시되 며 34억원의 시엄비가 투입될 예정이

주요 사업으로는 ▲식량작물분야 용 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등 10개 사업 10개소 ▲축산기술분야 반려동물 사료생산 틈새농업 육성 등 6개 시업 8개소 ▲채소분야 지황 재 배지 토양환경 개선 등 17개 사업 34 개소 ▲과수분야 고품질 과일생산 종

합관리 등 7개 사업 16개소 ▲베리산 업분야 베리류 관수시설 지원 등 9개 사업 38개소 등이다.

신청 자격은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 고 인근 농가에 파급하여 사업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역량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, 농업법인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한다.

시범시업 신청접수 후에 농업기술센 터 담당자들의 현지 심사와 민관합동 심의체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사업의 최종 대상자를 선 정 • 확정하게 된다.

농업기술센터 관계지는 "농업기술보 급 시범사업은 다양한 신기술 시범요 인을 투입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이며,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 및 스 마트팜과 같은 과학영농 실천으로 정 읍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"이라고 말 /정읍=김대환 기자

달리면서 즐기는 정읍의 참맛과 멋!

내달 24일 동학마라톤대회 열려··· 혁명정신 조명·다채로운 문화관광은 덤

정읍시가 '2019-2020 정읍방문 의 해'운영 관련 다양한 이벤트 를 마련 중인 가운데 내달 특별 한 마라톤이 열린다.

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 이 주최・주관하는 '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 톤대회 가 바로 그것이다.

정읍종합경기장을 출발, 내장산 일대를 거쳐 다시 종합경기장으 로 들어오는 코스다.

종목은 풀, 하프, 10km, 5km 등 4개 주 종목과 10개 세부 종목이 다. 풀코스는 종합경기장-내장산 IC-내장저수지-내장사-종합경기 장으로 이어진다.

출발을 알리는 징소리와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건각(健 脚)들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코스 를 돌며 정읍의 겨울을 한껏 만 끽하게 된다.

이번 대회는 범 국민운동으로

사랑받고 있는 마라톤을 통해 동 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혁명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높임은 물 론, 혁명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.

특히 지난해에 동학농민혁명 기 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 일'로 법정기념일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여서 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황토현 전승일은 1894년 5월 11 일 동학농민군이 정읍시 황토현 (現정읍시 덕천면 소재) 일대에 서 최초로 관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날이다.

참가 희망자는 이달 25일까지 정읍동학마라톤대회 홈페이지 (http://jdmarathon.kr)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참가비는 풀·하프·10km는 3 만원, 5km는 1만원이다.

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약 20%

빠른 속도로 참가 신청이 접수되 고 있다.

5km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, 풀·하프·10km 참가자에게는 2 만원 상당 정읍농특산품이 제공 되고, 완주자 전원에게 완주메달 이 수여된다.

총 상금은 3천만원으로 종목별 성적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 고 7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.

시 관계자는 "대회를 마친 후 함께 한 친구, 가족들과 함께 황 토현 전적지 등 동학농민혁명 관 련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혁명의 의의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것도 의미 있고, 시내 쌍 화차거리를 찾아 온갖 한약재로 푹 고은 따뜻한 쌍화차로 몸을 녹이다 보면 정읍의 참맛과 멋을 느낄 수 있을 것"이라며 많은 이 들의 참여를 당부했다.

/정읍=김대환기자

정읍시 CCTV통합관제센터, 자살방지 기여 감사장 받아

정읍시 CCTV통합관제센터(이하 통 합관제센터, 김철성 팀장)는 자살 의 심자(58)를 적극적인 실시간 모니터 링을 통해 발견하여 자살방지에 기여 한 공으로 정읍경찰서로부터 감시장 을 받았다.

통합관제센터는 지난 7일 23시경 정 읍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자살 의심자 수색 요청을 받았다. 이에 통 합관제센터는 차량판독용CCTV 시스 템으로 자살 의심자가 주천삼거리에 서 시청방향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 후, CCTV관제구역을 실시간 수색 하

여 자살 의심자가 잔다리목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112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위치제공으로 경찰이 안 전하게 의심자를 찾아 자살을 방지할 수 있었다.

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"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정읍경찰서 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사건·사고를 예방하고, 시민의 안 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품격 있는 행 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/정읍=김대환 기자

